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모집단위	학부/학과	수험번호	성명
------	-------	------	----

◆ 유의사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지 분량은 문항별 답안 길이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답안을 작성할 것.

감독확인



이화여자대학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우리 종족을 위해 그대들이 마련해 준 곳으로 가라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우리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의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패배한 이후로 헛되이 나날을 보내면서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나머지 나날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 많은 날이 남아 있지도 않다. 몇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가면 언젠가 이 땅에 살았거나 숲 속에서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 한때 그대들만 큼이나 힘세고 희망에 넘쳤던 사람들의 무덤을 슬퍼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퍼해야 하는가? (중략)

우리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대들이 약속한 보호 구역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마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흥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그가 다만 초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구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기억될 때라도, 기슭과 숲들은 여전히 내 백성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심장의 고동을 사랑하듯이 그들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팔더라도 우리가 사랑하였듯이 이 땅을 사랑해 달라. 우리가 돌본 것처럼 이 땅을 돌보아 달라.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 땅의 기억을 지금처럼 마음속에 간직해 달라.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대들의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지키고 사랑해 달라. 하느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듯이.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 모두의 하느님은 하나라는 것을. 이 땅은 그에게 소중한 것이다. 백인들도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우리는 한 형제임을 알게 되리라.

[나] 신이 음력으로 지난달 30일에 지방관이 전하는 비답(批答)을 받아 보니, 신에게 조정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절을 하고 공손히 비답을 받고 나서 그날로 5리 밖에 민가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길을 떠나 10리쯤 가서 길가에 떠도는 말을 들으니, 일전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폐하를 뵈었는데, 우리의 외부와 내부를 비롯한 여러 부의 매국 적신(賊臣)들과 부동(符同)하여 보호 조약을 맺도록 협박하고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외부의 조인(調印)까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 이게 무슨 변고입니까? 신은 물론 폐하께서 확고하게 견지하여 적신들의 위협과 공갈에 비준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다만 임금이 욕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법인 동시에 땅의 의리로서 영원히 마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옳어지며 걸어서라도 한 번 폐하를 뵈고, 만에 하나라도 뜨거운 심정을 토로하려고 하였으나 발이 부르튼고 숨이 험떡거리며 빨리 갈 방도가 없습니다. 겨우 옥천(沃川) 땅에 당도해서 들으니, ‘폐하의 결심이 확고히 정해져 종묘사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였고 죽으려다가 살아난 듯하여, 이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일으킨 것이라고 할 만하며 또 폐하의 마음이 한결같다고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이 바야흐로 기뻐하며 위에서 말없이 도울 것이고, 온 나라의 생령(生靈)들이 바야흐로 고무되어 아래에서 다투어 분발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천하에 공법(公法)이 있는 만큼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여러 대국들이 필경 같이 분해하면서 일제히 성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강 건너 불 보듯 하면서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킨다면 어찌 당초에 협약을 체결한 의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천하에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슬프다! 오래전부터의 역울을 떨쳐 버리면, 눈앞의 고통을 헤쳐 벗어나려면, 장래의 위협을 없애려면, 놀러 오고 라들고 사그라져 찾아진 민족의 장대한 마음과 국가의 체모와 도리를 떨치고 뺏치려면, 각자의 인격을 정당하게 발전시키려면, 가엾은 아들딸들에게 부끄러운 현실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대어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 공통의 옳은 성품과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양심이 정의라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취하매 어느 강자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을 피함에 무슨 뜻인들 퍼지 못하랴!

병자수호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갯가지 약속을 배반하였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체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 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써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함일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써 남을 시새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어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게 몇몇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라] 오늘날과 같이 모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는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제도적으로 정당화되거나,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신분 제도가 붕괴되고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 의식이 정착되고 모든 개인의 권리가 특정한 사회의 제도나 정부의 정책을 초월하여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자연법적 기본권에 대한 이념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자연법적 기본권이란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것으로, 모든 개인은 그가 속한 사회의 실정법이나 제도보다 우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당연히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은 개인이 외적으로는 부당한 강제 없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내적으로는 자신의 합리성을 침해하는 욕구나 충동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수단이며 자율성의 기초이다.

[마] 우리는 누구나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한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거나 삼촌이다. 나는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 조합 또는 저 조합의 회원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내게 이로운 것은 그러한 역할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이로워야 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 이는 내 삶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이자 도덕의 출발점이다. 또한 내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바] 준다고 바다를 마실 수는 없는 일. 사람이 마시기는 한 사발의 물. 준다는 것도 허황하고 가지거나 함도 철없는 일. 바다와 한 잔의 물. 그 사이에 놓인 골짜기와 눈물과 땀과 피. 그것을 켜줄 줄 모르는 데 잘못이 있었다. 세상에서 뒤진 가난한 땅에 자란 지식 노동자의 슬픈 환상. 과학을 믿은 게 아니라 마술을 믿었던 게지. 바다를 한 잔의 영생수로 바꿔 준다는 마술사의 말을. 그들은 뻔히 알면서 권력이라는 약을 팔려고 말로 속인 꾀임. 어리석게 신비한 술잔을 찾아 나섰다가, 김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보자, 그들은 항구를 차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그들은 감옥에 가둘 것이다. 못된 균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역사는 소결음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커다란 모순과 업(業)에 비기면, 아무 자국도 못 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대까지 사람이 만들어 낸 물질 생산의 수확을 고르게 나누는 것만이 모든 시대에 두루 맞는 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 동네가 알아낸 슬기. 사람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하는 슬픔과 기쁨을 고루 나누는 것. 그래 봐야, 사람의 조건이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어려움의 크기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이루어야 할 것에만 눈을 돌리면, 그 자리에서 그는 삶의 힘을 잃는다. 사람이 풀어야 할 일을 한눈에 보여 주는 것 - 그것이 '죽음'이다. 은혜의 죽음을 당했을 때, 이명준 배에서는 마지막 돛대가 부러진 셈이다.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 팔자소관으로 빨리 늙는 사람도 있는 법이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마련된 몸의 길, 마음의 길, 무리의 길. 대일 언덕 없는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 따라나선다.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당기를 바라며. 그리고 그 섬에서 환상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서운 것을 너무 빨리 본 탓으로 지쳐 빠진 몸이,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한, 중립국행이었다.

1 제시문 [가]~[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백인에 대한 태도와 제시문 [나]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태도를 대조하시오. [20점]
- 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에 나타난 일본 및 국제 질서에 대한 시각을 대비하여 논하시오. [20점]

2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의 개인에 대한 입장을 대조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제시문 [바]에 나타난 이명준의 선택을 평가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조세는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고소득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고소득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거둔 세금을 저소득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경우,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은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두게 된다.

- 1) E국은 A와 B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나라이다. A의 소득은 400원, B의 소득은 100원이다. 아래 E국의 누진세율표를 이용하여 A와 B 각각의 소득세를 산출하시오. [10점]
(※누진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세금으로, 소득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 소득 구간	누진세율
200원 이하	10%
200원 초과~500원 이하	20%
500원 초과	30%

- 2) E국의 전체 소득에서 두 국민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E-계수’라고 하자. 소득 분포의 불균등과 관련하여 E-계수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10점]
- 3) E국의 정부가 A와 B로부터 걷은 소득세 수입 전액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B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이전 지출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소득세 납부 이전 E-계수와, 소득세 납부 및 이전 지출 이후의 E-계수를 각각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비교하시오. [10점]